

IS 잇따른 만행…美, 지상군 투입?

공화, 오바마 대통령 전략부재 비판 나서

헤이글 前국방도 퇴임 후 잇단 소신 발언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전과 관련해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지상군 투입 문제가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줄기차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불가’ 입장을 비판해 온 상황에서 퇴임하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지상군 투입 필요성을 공식으로 언급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마도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병력 일부의 전진 배치 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투병은 아니더라도 각종 정보 수집이나 미 공군에 정확한 IS 목표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지난달 28일 퇴임식 이후 첫 소신 발언으로 지상군 투입 목소리를 낸 셈이다.

공화당은 헤이글 장관의 발언을 고리 삼아 지상군 투입을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IS 대책 전략 부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린지 그 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일 CBS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 동맹의 공습만으로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를 절대 격퇴할 수 없다”면서 “IS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려면 약 1만 명의 미 지상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 역시 NBC 방송에 출연해 “공습이 IS를 저지하는 데 이바지하긴 했지만, IS를 완전히 몰아내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지상군 투입 없이 IS를 격퇴하겠다는 구상은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정확한 공습 목표물을 확인하고 폭격을 안내하는 지상군의 도움 없이 IS를 물리치는 것은 힘들며 따라서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의 지상군은 투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헤이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관련해 백악관과 이견이 있었고 모종의 압력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타나모 갈등이 조기 퇴임의 한 원인임을 거듭 시사했다.

헤이글 장관은 ‘수감자 석방의 속도’에 관해 백악관과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기 중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려고 수감자 석방에 속도를 내 온 백악관과 달리 헤이글 장관은 그동안 수감자 석방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다. /연합뉴스



미국 최대 축제인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피닉스대주 경기장 앞에 1일(현지시간) 무장경찰이 서 있다. /연합뉴스

미 슈퍼볼 경기장 주변 경계 강화

IS·알카에다 등 테러 위협 고조…미 당국 긴장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을 앞두고 미 당국이 테러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매년 슈퍼볼에 앞서 경기장 및 주변 시설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지만, 특히 올해는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이들을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 등에 의한 테러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라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주 글렌데일의 피닉스대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슈퍼볼에 대비해 대(對) 테러대책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DHS)의 제이 존슨 장관이 최근 피닉스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보안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존슨 장관은 이날도 ABC 방송에 출연, 슈퍼볼 경기장을 찾는 관객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테러 등 각종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토안보부를 필두로 미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TSA), 연방 긴급사태관리청(FEMA) 등 관련 기관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것은 물론이고 백악관 비밀경호국(SS)까지 지원 업무에 가세했다.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공동으로 페이스북이나 알지저라 블로그 등을 포함해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중국 ‘실크로드’ 구상 구체화 하나

시진핑 ‘업무영도소조’ 출범…육·해상 동시 추진

중국 정부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건설에 관한 ‘업무(공작)영도소조’를 출범시켜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는 1일 영도소조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중점사업인 ‘일대일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장 부총리가 영도소조 조장을 맡았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조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볼 때 장 부총리가 조장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대일로’란 중국의 중서부 개발을

통해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육상 벨트인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남부 지방과 바닷길을 개발해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이다.

장 부총리는 “일대일로’ 건설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국내 및 국제의 양대 대국을 총괄하며 내린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면서 “전방위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 창조와 지역 및 세계평화 발전 추진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일대일로’에 6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도소조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아베, 제대로 대응 못해 일본인 참수”

日 야당·시민단체·언론 등 검증 목소리 높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일본인 인질사태가 2명 전 원 잠수라는 비극으로 일단락되자 이번 사태에 대한 아베 정권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1일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의 검

증 공세를 예고했고, 일본 주요 신문들도 검증의 필요성을 사설 등에서 거론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검증 대상으로 일본 언론은 우선 유가와 하루나(湯川遙菜·42), 고토 겐지(後藤健二·47) 등 자국민 2명이 IS에 억류된 사실을 정부가 작년에 파악했음에도 뒤늦게 대응한 점을 들었다.

자국민 2명이 IS에 억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아베 총리가 지난달 중동 방문 때 IS와 관련한 대처에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 시기와 표현의 적절성 면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IS가 인질 살해의 이유로 아베 총리의 ‘지원 발표’를 거론한 사실에 입각한 지적이었다. 중동에서의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지만 지원 발표가 IS를 자극하거나 테러 행위의 발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은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 사설은 “고토 씨의 가족이 지난해부터 몸값 지불 요구를 받은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중동을 방문하면서 IS와 싸우는 나라들에 경제 지원을 표명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라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또한, 호헌파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00명(추최측 발표)은 1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총리 관저 앞에서 ‘에도와 향의의 관저 앞 침묵 행동’으로 이름 붙인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나는 겐지다’, ‘인명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조용히 시위를 벌였다.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메시지도 등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 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상업지역) 사무실임대
(학원 시설완비)
(사무실 가능)

중심대로변
주차시설완비

상업중심지역

①1층, 2층 3층, 4층, 4층
②월수익 1,020만
③전사가 다입주 되어있음

010-6670-98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픈)

① 기본 경매 강의
② 바로 실전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오전10시~오후 7시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목포시 상락동(토221㎡, 건548㎡) 감정가3억7천, 최저1억7천
② 장성 삼계(토1068㎡, 건631㎡) 감정가2억5천, 최저9천1백
③ 순천시 행동(토373㎡, 건1304㎡) 감정가172억, 최저120억
④ 구례군 산동면(토1329㎡, 건958㎡) 감정가5억2천, 최저2억3천
⑤ 동구 계림동(토445㎡, 1558㎡) 감정가10억, 최저가7억5천
⑥북구 운암동 (토273㎡, 건물247㎡) 감정가2억, 최저가1억7천3백
⑦북구 중흥동 (토133㎡, 건물253㎡) 감정가1억7천, 최저가1억1천
⑧남구 서동(토306㎡, 건물90.18㎡) 감정가1억6천, 최저가 1억1천

오피스텔

①서구 치평동(대5.23, 건물331.12) 감정가6천7백, 최저가3천7백
②서구 화정동(대14.144, 건물44.35) 감정가5천, 최저가5천

공 장

①광산구 월전동(토지4162㎡, 건물3281㎡) 감정가30억, 최저가16억
②북구 월출동(건1746㎡) 감정가25억, 최저가11억
③광산구 지족동(토2073㎡, 건물1187㎡) 감정가16억, 최저가9억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